

지역 매아리

완주군, 폭염극복 협업체계 가동

완주군이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협업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8일 완주군은 제35보병사단 및 완주대대의 지원을 받아 관내 주요도로 살수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제35보병사단 및 완주대대는 봉동읍 일원에 군장비 2대를 투입해 살수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살수구간은 봉동읍 둔산리 일원 등 관내 주요 도로로,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집중 운영한다.

군부대의 지원은 폭염이 해제될 때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완주군은 무더위 쉼터 27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삼례·봉동·이서·고산 등 주요도로 살수차 운영,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주요지점 열음 비치, 승강장 내에 선홍기를 설치해 주민들의 불편을 덜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아토피 어린이 대상 일일 체험캠프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에서는 지난해 이어 두번째로 아토피·천식 안심기관 어린이를 대상으로 8일 지역 인근에 있는 치유숲에서 일일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캠프는 알레르기질환의 자연 치유환경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 하고 대상자 맞춤형 체험 교육을 통하여 질환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 및 자가 관리 능력 향상을 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체험으로는 서구식생활 등의 영향 및 환경오염으로 더욱더 증가하는 아토피·천식 어린이들에게 친화적인 먹거리로 식사를 나누며 우리 몸에 안 좋은 인스턴트 식품 줄이기를 알려주고 아울러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어 친환경 유기농 모기퇴치제, 피무알링 편백향 주머니 등을 같이 만들어 즐거운시간을 가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광복절 맞아 태극기 거리 정비

김제시 교월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안신호)는 8일 김제 중앙병원 앞 사거리 주변 '365 태극기 거리'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했다.

다가오는 제73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실시된 태극기 거리 일제 정비는 교월동 주민자치위원회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365 태극기 거리'의 훼손되거나 오염된 가로기 50여개를 교체하고 도로변 쓰레기를 제거하는 등 깨끗하고 청결한 거리 환경을 조성했다.

365일 태극기 거리는 시민들의 애국심을 고양하고 태극기 달기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지난 2014년 제69주년 광복절을 맞아 조성되었으며 365일 연중 상시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생명존중 문화조성의 일환으로 8일 김제시청에서 '김제시 생명존중문화 실천 선언 및 생명사랑 녹색마을 지정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

생명존중문화 실천 선언

김제시, 생명사랑 녹색마을 현판 전달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8일 생명존중 문화 실천선언 및 생명사랑 녹색마을 현판 전달식을 김제시청 대강당에서 마을이동장 및 관계자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졌다.

이날 기념행사는 김제시 부시장을 비롯하여 지역 이장단, 민간기관 대표, 사회복지 및 정신건강 관계기관, 마을이동장 등이 참석하여 자살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으며, '김제시 자살예방·생명존중 문화 실천 선언' '생명사랑 녹색마을 지정 현판 전달식' 등으로 진행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자살현황조사에 따르면 13년간 OECD 국가 중 자살 1위로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하루 자살사망자수는 36명이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에 서도 자살자 중 약물 및 농약음독이 전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김제지역 내 농약 음독에 따른 자살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관내 농약사, 마트, 철물점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집중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며 농약안전보관함 사용을 통해 총동적인 자살시도를 사전에 차단하여 보다 능동적인 자살예방 대책을 하고

자 농약안전보관함 설치에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올해 2018년에는 금구면 축령마을 등 37개마을 983개가 보급 설치, 총 1,184개 보급을 완료했다.

이로써 생명존중 문화조성의 일환으로 8일 김제시청에서 '김제시 생명존중문화 실천 선언 및 생명사랑 녹색마을 지정 현판 전달식'을 진행해 2018년 자살 없는 건강한 김제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

김형희 김제시보건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농약음독에 따른 자살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동적인 자살사고를 예방하고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통하여 더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무장애나눔길 조성

녹색자금 공모 선정 문화지구 일대에... 피크닉장 등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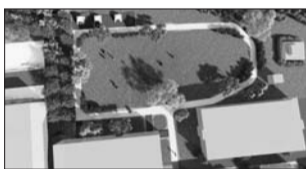
완주군이 완주가족문화교육원 문화지구 일대(구 잠업시험장)에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한다.

완주군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사업비 5억5000만원 중 3억3000만원을 복권기금 녹색자금으로 보조받았다고 8일 밝혔다.

무장애나눔길은 교목약자층(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을 위한 UD(Universal Design)과 BF(Banier free)가 반영된 데크로드, 황토길 등 산책로를 말한다.

다음 주 중 착공해 올해 말 완공예정인 안전한 보행과 체험을 위해 군청 도서관 주차장에서 완주가족문화교육원까지 구간 800m에 목재데크, 황토길 산책로와 조명등, 인원계수대, 피크닉장, 등의자, 녹음가로수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휠체어 이동 및 이용자수, 혼잡도 등을 고려해 데크폭을 2m로 했



으며, 최대8%경사 이하로 목재데크를 설치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완주군은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설계단계부터 주민과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한신호 산림축산과장은 "무장애나눔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교목약자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차별과 소외 없는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완주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한국관광공사의 무장애 관광지인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에도 선정돼 삼례문화예술촌을 새단장하기도 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신증후군 출혈열 예방접종 무료로 실시

완주군이 신증후군 출혈열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

완주군보건소는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증후군 출혈열 예방접종을 9월에 집중으로 무료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신증후군 출혈열은 한타바이러스에 의해 전파되며 주로 가을철에 들쥐나 집쥐 등의 배설물에 의해 호흡기나 상처 접촉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농업 종사자 및 밭과 산 등 야외활동이 빈번할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한다.

감염시에는 고열, 구토, 복통, 출혈 등 전신증상을 일으키는 급성 열성 질환으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신증후군 출혈열 예방접종은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 후 12개월 뒤 추가로 1회 접종이 필요하며 평생 3회 접종을 하면 추가접종은 권장하지 않는다.

예방접종은 가까운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보건소 예방접종실(063-290-3049, 3050)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지평선축제 종합프로그램 교육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8일 예술회관 2층 소공연장에서 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제20회 지평선축제 종합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이날 교육은 올해 축제의 기본방향과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통한 축제에 대한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자리로 양언업 문화홍보추진실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축제담당의 제20회 지평선축제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 세부프로그램 교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로 스무 해를 맞는 지평선축제는 글로벌 축제로의 위상확립을 위한 프로그램과 2030 젊은층을 타겟으로 한 프로그램, 김제시 농산물과 연계한 6차산업 선도 프로그램 개발을 기본 방향으로,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존 농경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관광객이 축제를 보다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편에 중점을 뒀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5개 분야 66개 프로그램 중 전년 대비 35%의 프로그램 변화와 17개의 신규 프로그램 및 기존 프로그램 중 보완된 프로그램 위주의 상세한 교육으로 직원들이 바뀐 프로그램에 대해 숙지하고 관광객에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원들의 축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참여를 독려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평선축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노력한 덕분이다"며 "올 축제 역시 전 직원이 힘을 합쳐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민반의 준비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로 스무해를 맞는 제20회 김제지평선축제는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5일간 벽골제 일원에서 관광객 이목을 사로잡는 다채로운 행사로 더 큰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박준배 김제시장이 8일 행정안전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을 방문했다.

국가예산 확보 '고군분투'

박준배 김제시장, 행정안전부·새만금개발청 등 방문

박준배 김제시장은 더욱 기승을 부리는 폭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계 휴가도 뒤로한채 경제도약이라는 사명을 완수하고자 발로 뛰는 행정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김제시에 따르면 박준배 시장은 추가경예산 편성 준비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8일 이인재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을 찾아가 축산 급수구역 노후상수관로 개선(10억원)과 장애인 평생학습센터 신축(20억원)에 필요한 국비를 지원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특히 시내버스 이용자의 지속적인 감소와 운송원가 상승으로 업체의 재정난이 가중됨에 따라 정상운행을 위한 특별보수세 지원이 절실함을 적극

설명하고 정부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어서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하고 관계자들을 만나 김제시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지역균형발전 및 미래 성장 동력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새만금 배후도시 용지 중 100만평을 4차산업단지조 개발을 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이후 시민들에게 부여해 준 경제도약이라는 사명을 단 한 순간도 잊은적이 없다"며 "이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국가예산확보와 지역현안 해결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피력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